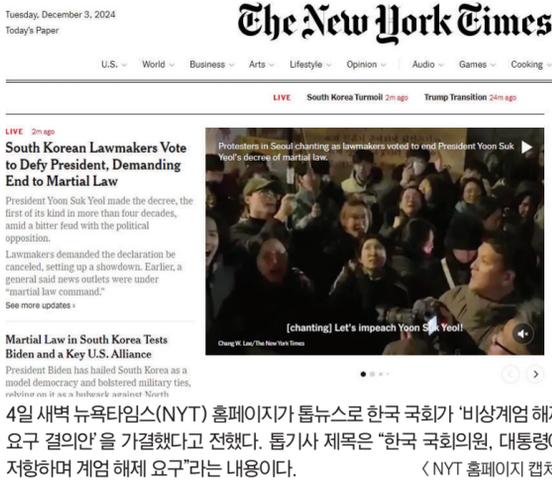


# “셀프 쿠데타·처절한 도박...한국 민주주의의 위험 빠져”

**외신들 계엄령 선포·해제 집중조명**  
**이코노미스트 “윤 대통령 미래 의문”**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전술 연상”**  
**빅터 차 “尹, 핵폭탄을 사용했다”**

외신들은 3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이번 사태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특히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집권 후 마주해온 위기들을 소개하며 그가 이를 돌파하기 위해 ‘도박’에 나섰다며 되레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이번 사태가 “한국을 혼란에 빠뜨렸고 윤 대통령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시험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먼저 행동을 취하면 상대로부터 선수를 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정상적인 정치활동을 훨씬 뛰어넘어 1960-1970년대에 통치한 군부 독재자 박정희의 전술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핵폭탄을 사용했다”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의 평가를 소개했다. 이 매체는 또 윤 대통령이 이번 행동을 통해 “정

권을 살리려는 듯했지만, 대신 그는 자신의 몰락을 거의 확실하게 만들었다”며 “그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으면 국회는 아마도 그를 탄핵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양극화는 깊게 자리 잡았고, 반대 진영은 서로를 ‘필멸의 적’으로 간주하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극단적인 조처를 한 것은 사실 더 깊은 고질병에 대해 말해준다”고도 짚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윤 대통령의 ‘단명한’ 계엄령 선포는 바닷난 대중적 인기에 직면한 가운데 실행한 처절한 도박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위주의 향수에 빠진 윤 대통령은 적어도 한국 정치 진영의 일부가 이에 호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면 “하지만 여당을 포함한 국회가 만장일치로 그의 선언을 뒤집은 것은 그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영국 케임브리지대 일본-한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존 낄슨-라이트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 “권위주의적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우파의 강한 향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보다는 “윤 대통령의 성격이 반영된 것 같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일부 외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국빈 방미 당시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한 장면을 이번 사태와 견주어 언급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해당 노래 영상을 함께 링크한 기사에서 당시 “북한에 대한 강성 입장으로 잘 알려진 지도자의 부드러운 면을 세계에 보여



4일 새벽 뉴욕타임스(NYT) 홈페이지가 톱뉴스로 한국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톱기사 제목은 “한국 국회의원, 대통령에 저항하며 계엄 해제 요구”라는 내용이다. < NYT 홈페이지 캡처 >

줄 기회”이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지도자와 카메라 앞에서 어깨를 맞대는 기회였다”고 짚었다. 하지만 그가 “극적인 조치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노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향후 회담을 위해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워싱턴과 백악관을 방문할 기회가 아마 또다시 주어질까? 현재로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관측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도 윤 대통령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종종 더 따뜻한 환영을 받기도 했으며 윤 대통령의 ‘아메리칸 파이’ 열창으로 호응받은 사례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한국 현대사 중 가장 심각한 헌법적 위기 중 하나가 촉발됐으며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불확실해졌다”고 짚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1년 전까지 검사 생활을 한 인물로 “그는 자신을 정치 엘리트의 부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웃사이

더로 위치시켰다”고 짚었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그의 정치적 경험 부족이 북한과 대치한 나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2년 만에 비판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미국 매체 포인폴리시는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시도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하지만 한국 국회가 만장일치로 이를 거부한 뒤 윤 대통령의 ‘셀프 쿠데타’는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놀랍고 충격적이고 부끄럽다”...미 한인들 ‘계엄령 상황’ 예의주시

**NYT 현지 한인들 반응 소개**  
 미국 한인 사회는 3일(현지시간) 고국에서 타전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관련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여전히 한국의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NYT는 이날 ‘미국의 한인들은 서울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기사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따른 현지 한인들의 반응을 이같이 소개했다.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김중준(56)씨는 계엄령 선포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고 NYT에 말했다. 그

는 1998년 대학원 공부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한 뒤엔 이전만큼 고국의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날 여의도 국회 밖의 시위 장면을 보며 과거 전두환 정권에 맞서 거리로 나섰던 1980년대 시절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떠난 후 한국이 많은 것을 성취했는데 “정치가 왜 80년대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이 “조금 부끄럽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 폭풍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도 강조했다. NYT는 미국의 “많은 한인인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민자 공동체에서 발행되는 한국어 신문을 읽으며 여전히 한국의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날 미국 전역의 한인들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한국의 사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휴대전화를 붙잡고 한국에 있는 친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미국 한인들의 초기 반응은 일치된 듯 보였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때때로 한인사회 내에 격렬한 정치적 분열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번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은 대체로 비슷했다는 것이다. 미국 한인단체 미주한인협의회(CKA)의 에이브러햄 김 사무총장은 계엄령 해제 전 입장문에서 “한국이 강력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계엄령이 평화적으로 해제되길 바란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미·EU 등 주요국 “우려·주시...해제돼 안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한국 내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국회의 표결로 계엄 상황이 해제된 상황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려스러운(concerning) 계엄령 선포에 관해 방향을 바꿔 계엄을 해제하는 한국 국회의 표결을 존중할 것에 대해 안도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아프리카 앙골라를 방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

통령을 비롯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분야 수뇌부가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를 브리핑받았고, 지속해서 상황 평가를 보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에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영 인테르팍스 통신에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이 우려스러우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디시바 “중대한 관심으로 주시...방한, 정해진 것 없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4일 한국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아젯밤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한국 계엄 선포에 따른 일본인 안전과 한일관계 영향”에 관한 기자 질문에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해 이것저것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 안전에 대해서는 영사 메일을 즉시 보내는 등 가능한 대응을 하고 있

다”며 “일본인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일본인 피해 보도는 전혀 접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내년 1월 방한 조율 보도와 관련해 “한국 방문은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내달 초순께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머스크, 한국의 계엄 소식에 “와우...충격적”

**엑스서 잇단 댓글로 ‘놀라움’ 표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 소식을 접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놀라움의 반응을 나타냈다. 머스크는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사용자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올린 글에 댓글 게시물로 따옴표 2개를 찍어 올리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머스크는 이어 약 3시간 뒤 한국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엑스 글과 국회 사진 게

시물에 다시 댓글로 “와우”(Wow)라고 썼다. 또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는 다른 사용자의 댓글에는 “그렇다. 이것은 충격적”(Yeah, this is shocking)이라고 답했다. 머스크의 이런 댓글은 수백차례 리트윗됐고, 여기에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게 된 배경과 이후 상황 등을 궁금해하는 엑스 이용자들의 댓글이 잇달았다. 다만 머스크는 이 사안과 관련해 그 밖의 다른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